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Institutionaliz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Family Networks*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교수 이순형
강사 이강이
박사과정 성미영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

Professor : Soon Hyung Yi

Lecturer : Kang Yi Lee

Doctorial Course : Mi Young S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 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institutionaliz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family networks. Subjects were 250 institutionalized children in 15 child-welfare facilities in Seoul (132 preschooler, 55 first and 63 second grade children; 144 boys and 106 girls). Data were analyzed with t-test, ANOVA, and Duncan test. Measures of behavior problems included internalizing (anxiety, immaturity, withdrawal, physical symptom)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hyperactivity, aggression). Results showed that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ving parents were higher in internalizing problems than children not having parents, while children living with siblings in the facilities were lower in externalizing problems than children living without siblings. Furthermore, institutionalized children having parents and living without siblings were higher in both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than children not having parents and living with siblings.

주제어(Key Words): 시설아동(institutionalized children), 가족관계망(family networks), 행동문제 (behavior problems)

* 이 논문은 1999년도 두뇌한국21 사업 핵심분야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I. 서론

취학전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초기 아동기는 아동의 인생에서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고, 또래들과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으며, 교사 등 다양한 성인들의 권위에 순응하고, 부여된 구조에 명백하게 들어맞도록 기대되어지는 첫 시기(Egeland, Kalkoske, Gottesman, & Erickson, 1990)로, 이 시기의 사회적 적응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행동문제가 있다. 행동문제가 아동의 사회적 적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반영해주는 지표로 행동문제의 안정성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유아기에 문제가 있다고 규명되었던 아동은 초등학교 시기와 청소년 초기까지도 그 어려움이 지속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Campbell, 1995; Egeland et al., 1990; Fergusson, Horwood, & Lynskey, 1994). 그런데 선행연구(Campbell, 1995; Fergusson et al., 1994; Shaw, Vondra, Hommerding, Keenan, & Dunn, 1994)를 통해 초기 아동기의 행동문제와 관련 있는 것으로 규명된 변수를 살펴보면, 결혼부적응이라든가 결혼불만족,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부모의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생활사건의 높은 발생 빈도, 편부모 가족, 가족관계의 갈등, 잦은 주거의 변화, 양육자의 변화, 높은 수준의 물질적 어려움 등 가족환경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가족환경이 결여된 시설아동의 경우 행동문제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을뿐더러 시설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초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시설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문제를 살펴본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행동문제의 발생은 유사한 환경에 처한 모든 시설아동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행동문제의 발달을 결정짓는 요인을 살펴보면, 많은 수의 아동이 부모의 낮은 직업지위 또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다양한 생활사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문제없이 대처하는데, 이는 위험요인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켜주는 보호요인이 존재하

기 때문이다. 선행연구(Campbell, 1995; Egeland et al., 1990; Haapasalo & Tremblay, 1994; Shaw et al., 1994)에서 아동의 적응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자주 지적된 것으로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관계망을 들 수 있다. 즉, 아동은 발달과정에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받게 되는데,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해당하는 사회적 관계망은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의미한다(김명숙, 1994). 그런데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은 성인과는 다소 차이를 보여서, 특히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족관계망은 스트레스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은 사회적 지지 지각에 있어서 다른 지지 제공원에 비해 가족의 지지를 가장 높게 인식한다(장영서·현은강, 1998; 한미현, 1996). 따라서 초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주로 부모 및 형제로 구성된 가족관계망이 행동문제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이 이들의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시설아동의 행동문제를 동거 형태의 유무에 따라 살펴본 연구(최일경, 1996)가 있을 뿐이며, 그나마 이 연구의 결과는 아동의 자기보고와 보육사의 보고간에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난 문제가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에 밀어닥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위기가 아동에게 미친 직접적인 영향으로 가족해체의 급증을 들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주로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숫자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이후 하루 평균 3, 4명씩 일년에 1천여명 가량의 아동이 이혼한 부모로부터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다(한국일보, 1997년 5월 21일). 또한 부모의 실직이나 부도 등에 따른 가계수입의 감소로 인해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부모가 자녀를 보육원에 위탁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15~20% 정도 증가하고 있다(중앙일보, 1998년 2월 28일). 시설보호 아동 가운데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의 비율은 통계자료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의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아동 가운데 93.8%가 부 또는 모가 생존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1999). 이러한 수치는 보육원 아동의 상당수가 입소 이전에 부모와 함께 살았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엄연히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중심 가족의 해체로 말미암아 집단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생존해 있는 부모라는 가족관계망이 시설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고아에 비해 부모와 함께 살다가 경제적 문제나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해 시설에 맡겨진 아동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과 부모의 불화를 직접 경험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충격이나 상실감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실감은 사회적 부적응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아예 없는 고아나 미혼모 자녀들에 비해 이혼부모의 아이들은 부모의 오랜 불화와 자신이 버려졌다는 데 대한 충격이 워낙 커서 정서불안 등 심각한 심신장애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갈등과 불화, 그리고 이혼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선행연구들(Hamish, Dodge, & Valente, 1995; Hamist & Ainslie, 1998)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따라서 시설아동 가운데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은 비록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지만 가족관계망이 완전히 해체된 것이 아니므로 부모의 생존 자체가 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버려졌다는 상실감으로 인해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행동문제를 유발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형제는 부모와 더불어 아동이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망의 대표적 지지 제공원이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한 시설에 형제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정서적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에 근거해 볼 때, 시설에서 형제와 함께 생활하는지 아니면 혼자 생활하는지에 따라서 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손위형제와 함께 양부모 가정(foster care)에 입양된 아동이 형제와 떨어져 입양된 아동에 비해 정서 및 행동문제를 더 적게 보였으며(Smith, 1998), 갈등 수준이 높은 가족 출신 아동의 경우, 형제의 지지를 낮게 지각한 아동이나 형제가 없는 아동에 비해 형제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아동이 더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 양상을 보였다(Caya & Liem, 1996). 이는 시설에서 함께 동거하는 형제가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행동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낮음을 예측케 한다. 따라서 가족의 해체라는 부정적 생활사건을 경험하고 형제와 함께 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경우, 형제의 존재가 정서적 지지원으로 작용하여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에 비해 행동문제를 적게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결과는 없다.

이상에서 제기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행동문제를 가족관계망의 차이에 따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 【연구문제 1】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시설아동의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시설내 동거형제의 유무에 따라 시설아동의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가족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시설아동의 행동문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된 아동의 행

동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에 소속된 서울시 소재 15개 시설에 입소 중인 250명의 시설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부모가 있는 어린 아동의 시설입소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가족해체로 인한 시설입소가 초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시설아동의 행동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조사대상을 초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4세 이상 9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하였다. 전체 조사대상 250명 중 미취학 아동은 132명(52.8%), 1학년은 55명(22.0%), 2학년은 63명(25.2%)으로 나타났으며, 조사대상의 성별 분포는 남아 144명(57.6%), 여아 106명(42.4%)이었다. 조사대상 아동의 연령분포는 4세 40명(16.0%), 5세 37명(14.8%), 6세 53명(21.2%), 7세 58명(23.2%), 그리고 8세 62명(24.8%)이었다. 조사대상 중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¹⁾은 167명(66.8%),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아동은 83명(33.2%)이었으며, 같은 시설에서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 아동이 112명(44.9%), 동거형제가 없는 아동은 138명(55.1%)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의 평균 시설입소기간은 2년 7개월이었으며, 이 중 과반수 이상의 아동(129명, 51.8%)이 IMF 지원이 시작된 후인 98년 이후에 시설에 입소하였다.

2. 조사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시설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아동을 대상으로 Achenbach(1991)의 아동행동평가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 CBCL)의 타당도를 검증한 한미현·유안진(1995, 1996)의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Achenbach(1991)의 척도는 불안행동, 과잉행동, 미성숙행동, 비행, 공격행동, 위축행동, 사고문제, 신체증상, 성문제의 9개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나, 한미현·유안진(1996)은 이 중 한국아동이 주로 보이는 행동문제인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미성숙행동의 5개 영역만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그런데 본 연구는 미취학 및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포함한 4~8세의 초기 아동기를 조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4학년

과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한미현·유안진(1996)의 척도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나이 어린 아동의 경우에는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행동문제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체증상 영역을 척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안행동, 미성숙행동, 위축행동, 신체증상, 과잉행동 및 공격행동의 6개 영역으로 아동행동문제척도를 구성하였다. 또한 아동의 행동문제를 크게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로 구분한 Achenbach(1991)의 범주에 근거하여 불안, 미성숙, 위축, 신체증상은 내면화 행동문제로, 과잉 및 공격행동은 외면화 행동문제로 범주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동행동문제 척도의 전체 문항 수는 총 36문항(36점~144점)으로 하위영역별 문항 수는 각각 6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하위영역별 문항의 예를 살펴보면, 먼저 내면화 행동문제의 경우 불안행동은 '걱정이 많고 무서움을 탄다', 미성숙행동은 '자기 나이보다 어리게 행동한다', 위축행동으로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신체증상으로는 '피곤해한다' 등이다. 다음으로 외면화 행동문제에서는 과잉행동의 경우 '차분히 앉아 있지 못하고 부산하다', 공격행동으로는 '사람들을 때리거나 친다'와 같은 문항이 사용되었다. 각 문항은 1점(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그런 편이다), 4점(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아동행동문제척도의 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는 박사과정 이상의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 3인에 의해 검토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의 신뢰도는 각각 .91로 나타났다. 이를 다시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불안, 미성숙, 위축, 신체증상은 각각 .81, .76, .82, .66으로 나타났으며, 과잉 및 공격행동은 각각 .82, .87로 나

1)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은 부모 가운데 한 명 또는 두 명 모두 생존해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아동'은 그 이외의 모든 경우를 의미함.

<표 1> 아동행동문제척도의 문항수 및 신뢰도

행동문제 하위영역	문항수	신뢰도
내면화 행동문제	24문항	.91
불안행동	6문항	.81
미성숙행동	6문항	.76
위축행동	6문항	.82
신체증상	6문항	.66
외면화 행동문제	12문항	.91
과잉행동	6문항	.82
공격행동	6문항	.87

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재 15개 보육원의 미취학 및 초등학교 1, 2학년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보육사가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도록 아동행동평가 질문지(Child Behavior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은 연구자가 아동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사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응답하도록 한 후 이를 바로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에 의해 통계처리되었으며, 통계방법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t-검증, 일원분산분석(ANOVA), 그리고 추후분석으로 Duncan 검증이 사용되었다.

III. 결과 및 해석

부모의 생존여부 및 동거 형제 유무에 따른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차이를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조사대상 시설아동의 전반적인 행동문제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총점수는 평균 65.39점으로, 이 중 내면화 행동문제 점수는 평균 42.51점, 외면화 행동문제 점수는 평균 22.88점으로 나타났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별 점수를 살펴보면, 불안행동이 평균 11.14점, 미성숙행동은 평균 12.17점, 위축행동은 평균 9.85점, 그리고 신체증상은 평균 9.36점이었다. 다음으로 외면화 행동문제의 경우, 과잉행동은 평균 12.00점이었으며, 공격행동은 10.88점이었다. 즉, 초기 아동기의 시설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는 미성숙행동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신체증상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른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라 시설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시설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생존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t=1.99, p<.05)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M=43.46, SD=12.53)이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아동(M=40.60, SD=9.66)

<표 2> 부모의 생존여부에 따른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행동문제 하위영역	부모가 생존한 경우(n=167)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n=83)	t
	M(SD)	M(SD)	
내면화 행동문제	43.46(12.53)	40.60(9.66)	1.99*
불안행동	11.32(3.97)	10.77(3.30)	1.08
미성숙행동	12.47(4.15)	11.55(3.57)	1.73
위축행동	10.11(3.61)	9.34(3.04)	1.67
신체증상	9.56(2.97)	8.94(2.82)	1.59
외면화 행동문제	23.14(8.05)	22.36(7.43)	.74
과잉행동	12.21(4.33)	11.57(4.04)	1.13
공격행동	10.93(4.10)	10.80(3.84)	.25

* p<.05

에 비해 내면화 행동문제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서는 부모의 생존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시설아동이 보이는 외면화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부모의 생존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외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2. 시설내 동거 형제의 유무에 따른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시설내 동거 형제의 유무에 따라 시설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시설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시설내 동거형제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내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중 위축행동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2.59, p<.05$). 즉, 시설내에 함께 동거하는 형제가 없는 아동($M=10.36, SD=3.57$)이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M=9.23, SD=3.20$)에 비해 위축행동의 점수가 더 높았다. 그러나 위축행동을 제외한 내면화 행동문제의 다른 하위영역에서는 시설내 동거 형제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외면화 행동문제의 경우에는 시설내 함께 동거하는 형제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

였으며($t=2.22, p<.05$), 특히 외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 중 공격행동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2.40, p<.05$). 즉, 시설에서 함께 동거하는 형제가 없는 아동($M=23.86, SD=7.88$)이 시설에서 형제와 함께 동거하는 아동($M=21.67, SD=7.65$)보다 외면화 행동문제 점수가 더 높았으며, 특히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M=11.43, SD=4.01$)은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M=10.21, SD=3.92$)보다 공격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면화 행동문제의 또 다른 하위영역인 과잉행동에서는 시설내 동거 형제의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가족관계망의 유형에 따른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조사대상 아동을 다음과 같이 네 집단으로 범주화하였다. 먼저 집단 1은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시설내 동거 형제가 없는 집단이고, 집단 2는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시설내 동거 형제가 있는 집단이다. 다음으로 집단 3은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고 시설내 동거 형제도 없는 집단이고, 집단 4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시설내 동거 형제가 있는 집단이다. 가족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범주화된 집단간에 행동문제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추후검증으로 <표 4>와 같이 Duncan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시설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를 살펴보면, 가

<표 3> 시설내 동거형제의 유무에 따른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행동문제 하위영역	형제 없음(n=138)	형제 있음(n=112)	t
	M(SD)	M(SD)	
내면화 행동문제	43.48(11.60)	41.32(11.80)	1.45
불안행동	11.30(3.61)	10.95(3.95)	.72
미성숙행동	12.38(3.93)	11.91(4.05)	.92
위축행동	10.36(3.57)	9.23(3.20)	2.59*
신체증상	9.46(3.04)	9.23(2.80)	.60
외면화 행동문제	23.86(7.88)	21.67(7.65)	2.22*
과잉행동	12.44(4.25)	11.46(4.17)	1.83
공격행동	11.43(4.01)	10.21(3.92)	2.40*

* $p<.05$

<표 4> 가족관계망의 유형에 따른 시설아동의 행동문제

행동문제 하위영역	집단 구분	n	M	SD	F	Duncan
내면화 행동문제	집단1	74	44.89	12.90	2.8783*	a
	집단2	93	42.32	12.17		ab
	집단3	64	41.84	9.72		ab
	집단4	19	36.42	8.40		b
불안 행동	집단1	74	11.65	3.82	.8030	a
	집단2	93	11.05	4.08		a
	집단3	64	10.88	3.33		a
	집단4	19	10.42	3.25		a
미성숙 행동	집단1	74	12.64	4.35	2.7271*	a
	집단2	93	12.34	4.00		a
	집단3	64	12.08	3.40		a
	집단4	19	9.79	3.68		b
위축 행동	집단1	74	10.85	3.83	4.7354**	a
	집단2	93	9.52	3.34		bc
	집단3	64	9.78	3.17		a c
	집단4	19	7.84	1.98		b
신체 증상	집단1	74	9.76	3.10	1.3479	a
	집단2	93	9.41	2.87		a
	집단3	64	9.11	2.94		a
	집단4	19	8.37	2.31		a
외면화 행동문제	집단1	74	23.99	8.66	3.6028*	a
	집단2	93	22.46	7.50		a
	집단3	64	23.72	6.95		a
	집단4	19	17.79	7.35		b
과잉 행동	집단1	74	12.53	4.64	3.8156*	a
	집단2	93	11.96	4.07		a
	집단3	64	12.33	3.78		a
	집단4	19	9.00	3.90		b
공격 행동	집단1	74	11.46	4.28	2.9250*	a
	집단2	93	10.51	3.92		ab
	집단3	64	11.39	3.70		a
	집단4	19	8.79	3.69		b

* p<.05 ** p<.01

족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범주화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서 시설내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M=44.80, SD=12.90)이 부모

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시설내 동거형제가 있는 아동(M=36.42, SD=8.40)보다 내면화 행동문제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F=2.8783, p<.05). 내면화 행동

문제의 하위영역 중에서는 미성숙행동($F=2.7271$, $p<.05$)과 위축행동($F=4.7354$, $p<.01$)에서 집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사망했으며 시설내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M=9.79$, $SD=3.68$)은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동거 형제가 없거나($M=12.64$, $SD=4.35$),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동거 형제가 있거나($M=12.34$, $SD=4.00$), 또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고 동거 형제도 없는 아동($M=12.08$, $SD=3.40$)에 비해 미성숙한 행동을 유의하게 적게 보였다. 그리고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으며 시설내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M=7.84$, $SD=1.98$)은 부모가 생존해 있고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이나($M=10.85$, $SD=3.83$),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고 동거 형제도 없는 아동($M=9.78$, $SD=3.17$)보다 위축행동을 유의하게 적게 보였다. 또한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M=10.85$, $SD=3.83$)은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M=9.52$, $SD=3.34$)보다 위축행동을 유의하게 많이 보였다.

다음으로 시설아동의 외면화 행동문제는 가족관계망의 유형에 따라 범주화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시설내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M=17.79$, $SD=7.35$)은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동거 형제가 없거나($M=23.99$, $SD=8.66$),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동거 형제가 있거나($M=22.46$, $SD=7.50$), 또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고 동거 형제도 없는 아동($M=23.72$, $SD=6.95$)에 비해 외면화 행동문제 점수가 유의하게 낮았다($F=3.6028$, $p<.05$).

외면화 행동문제의 하위영역에서는 과잉행동($F=3.8156$, $p<.05$)과 공격행동($F=2.9250$, $p<.05$) 모두에서 집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시설내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M=9.00$, $SD=3.90$)은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형제가 없거나($M=12.53$, $SD=4.64$),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동거 형제가 있거나($M=11.96$, $SD=4.07$), 또는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고 동거 형제도 없는 아동($M=12.33$, $SD=3.78$)에 비해 과잉행동을 유의하게 적게 보였다. 그리고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시설내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M=8.79$, $SD=3.69$)은 부모가 생존해 있으며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M=11.46$, $SD=4.28$)이나,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고 동거 형제도 없는 아동($M=11.39$, $SD=3.70$)보다 공격적 행동을 유의하게 적게 보였다.

IV. 결론 및 논의

초기 아동기의 시설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유형 및 정도는 이후의 학교 및 사회생활에서의 행동문제를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해체로 인해 초기 아동기에 속하는 어린 아동의 시설 입소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부모의 생존여부와 시설내 동거 형제의 유무에 따라 시설아동의 행동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이 이들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된 미취학 및 초등학교 1·2학년 아동 2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을 수 있다.

첫째, 시설아동은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 내면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시설아동의 내면적인 심리적 적응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부간 불화는 자녀가 보이는 높은 수준의 공격성과 관련을 보이며(Harist & Ainslie, 1998)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의 자녀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또래보다 높은 수준의 외면화 행동문제를 보이는 등(Hamish et al, 1995), 흔히 부모의 불화라든가 이혼을 경험한 아동이 부모로부터 지지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고(McLoyd & Wilson, 1990), 그 결과 외면화 행동문제를 보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본 조사에서는 생존해 있는 부모가 자신을 시설에 맡기거나 유기하는 과정에서 지지적인 양육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설아동이 외면화 행동문제에서는 부모가 생

존하지 않은 시설아동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내면화 행동문제에서는 차이를 보여서,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와의 동거 유무 및 조사대상의 연령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발달시기상 초기 아동기는 홀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시기로 여전히 부모의 존재 자체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시설에 맡겨졌다는 사실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입고 우울이라든가 위축과 같은 내면화 행동문제를 보였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 중 부모가 생존해 있는 16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가 너를 데리러 온다면 따라가겠느냐?”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 결과, 80.2%에 해당하는 134명의 아동이 “꼭 따라가겠다”고 응답했으며, “따라가지 않겠다”고 응답한 아동은 20명(12%), 그리고 나머지 13명(7.8%)의 아동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해서, 부모와의 강한 재결합 의사를 보였다. 따라서 초기 아동기에 해당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 떨어져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이들의 내면적 행동문제와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와의 동거 여부가 나이 어린 아동의 내면화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고 자신을 시설에 맡긴 부모에 대한 아동의 심리를 보다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면접과 같은 질적 접근방법과 함께 불안정한 가정환경에 노출되어 있기는 하지만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아동 집단과의 비교작업이 추후 연구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같은 시설에서 함께 살고 있는 형제가 있는 아동은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에 비해 외면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낮고, 특히 공격적 행동을 더 적게 했다. 이는 형제와 함께 입양된 아동이 형제와 떨어져 입양된 아동에 비해 행동문제를 더 적게 보인다는 연구결과(Smith, 1998)와, 다른 사회적 지원이 결여된 경우 아동은 형제를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근원으로 인식한다는 결과(Kosonen, 1996)에 의해 설명된다. 부모와 같이 살지 않는 시

설아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기보호 아동의 경우 돌보아 줄 성인의 부재가 아동의 기본적 욕구 충족을 어렵게 함으로써 그러한 욕구불만이 공격성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나타난다(최경순·정현희, 1996). 결국 부모로부터 버림받음과 동시에 같이 생활하는 형제조차 없는 시설아동의 경우, 의지하고 기댈만한 대상의 부재로 인한 자기보호 행동이 공격적인 양상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동거 형제가 없는 시설아동은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에 비해 내면화 행동문제 중 위축행동의 수준이 높았는데, 이는 가족의 갈등을 경험한 아동 중 형제가 없는 아동이 형제의 지지를 높게 지각한 아동에 비해 심리적 적응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것(Caya & Liem, 1996)과 일맥상통한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이혼한 유아와 정상가족의 유아가 형제와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부모가 이혼한 유아가 형제와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Kier & Lewis, 1998), 이는 부모의 이혼과 같은 부정적인 생활 경험이 형제간의 상호의존을 더욱 증가시켜준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가족관계망의 유형에 따른 집단의 범주화를 통해 시설아동의 행동문제차이 여부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집단과,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집단은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에서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생존해 있지만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이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에 비해 내면화 및 외면화 행동문제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주위사람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또한 아동에게 지지를 제공해주는 지원이 많을수록 아동이 행동문제를 덜 보인다는(김명숙, 1994)는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설명해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시설아동에 비해 부모가 생존해 있으나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시설아동은 상대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상실을 더 크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시설내 동거 형제의 존재는 아동에게 사회적 지원으로

인식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지만 동거 형제가 있는 아동이 부모가 생존해 있고 동거 형제가 없는 아동에 비해 사회적 지지의 정도를 더 높게 지각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행동문제를 적게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고 형제가 한 시설에 있다는 점이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와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며, 같이 살고 있지 않은 부모가 생존해 있다는 사실보다는 오히려 시설에서 형제와 같이 산다는 점이 아동에게 상대적으로 더 강한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생존 여부와 시설내 동거 형제의 유무라는 가족관계망의 존재 유무만을 근거로 하여 초기 아동기 시설아동이 보이는 행동문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아동과 생존해 있는 부모와의 접촉 방법이라든가 접촉의 횟수 등 아동이 부모 또는 형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질적인 측면을 살펴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시설아동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일반아동과의 비교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또한 보육사가 평가한 행동문제의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자신이 돌보는 아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게 주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연구의 제한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시설아동에게 미치는 가족관계망의 의미 및 이외의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 질적 접근을 통해 좀 더 심도있게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가족해체에 따른 나이 어린 아동의 보호시설 입소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공해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생존해 있는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지속적인 접촉 및 상호작용, 그리고 더 나아가 부모와의 재결합에 대한 끊임없는 제도적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아동수용시설에서는 시설운영의 편의상 아동과 부모와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와의 접촉이 오히려 아동의 시설적

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는 시설장의 견해를 무조건 비판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결과는 적어도 초기 아동기에 속하는 아동의 경우에는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머물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이들에게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시설아동에게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 구축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시설아동의 경우에는 비록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는 않지만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지지를 아동이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후원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시설아동의 사회적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 시설아동에게 부모 및 형제와 같은 정서적 지지 역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다각도로 요구된다. 최근 들어 가족해체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 자녀가 시설에 맡겨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 아동에게 있어 부모와의 이별은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책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 어린 자녀를 버리거나 시설에 맡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종의 단기보호시설(김현용, 1999)과 같은 임시 생활기반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명숙(1994).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현용(1999). 보육원 수용아동과 사회적 책임, 소외된 아동의 실상과 사회적 책임, 그리고 아동 전문가의 역할. 1999년도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153-171.
- 보건복지부(1999).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
- 장영서, 현은강(1998). 구조적, 기능적 측면에서 본 아동기의 사회적 지지-Social Convoy Model을 토대로-. 대안가정학회지, 36(3), 191-206.
- 중앙일보(1998). 2월 28일자.

- 최경순, 정현희(1996). 저소득층 취업모 자기보호 아동의 사회적 능력, 또래관계 및 정서발달. *아동학회지*, 17(2), 107-119.
- 최일경(1996). 시설아동의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일보(1997). 5월 21일자.
- 한미현, 유안진(1995). 아동행동평가척도(CBCL)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Department of psychiatry. VT: University of Vermont.
-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6(1), 113-149.
- Caya, M. L., & Liem, J. H. (1996). The role of sibling support in high-conflict famili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2), 327-333.
- Egeland, B., Kalkoske, M., Gottesman, N., & Erickson, M. F. (1990). Preschool behavior problems: stability and factors accounting for chang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1, 891-909.
- Fergusson, D. M., Horwood, L. J., & Lynskey, M. (1994). The childhood of multiple problem adolescents: A 15-year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6), 1123-1140.
- Haapasalo, J., & Tremblay, R. E. (1994). Physically aggressive boys from ages 6 to 12: Family background, parenting behavior, and prediction of delinquenc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5), 1044-1052.
- Harnish, J. D., Dodge, K. A., & Valente, E. (1995). Mother-child interaction quality as partial mediator of the roles of maternal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socioeconomic status in the development of child behavior problems. *Child Development*, 66, 739-753.
- Harrist, A. W., & Ainslie, R. C. (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19(2), 140-163.
- Kier, C., & Lewis, C. (1998). Preschool sibling interaction in separated and married families: Are same-sex pairs or older sisters more sociabl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 Psychiatry & Allied Disciplines*, 39(2), 191-201.
- Kosonen, M. (1996). Siblings as providers of support and care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ren's perceptions. *Children & Society*, 10(4), 267-279.
- McLoyd, V., & Wilson, L. (1990). Maternal behavior, social support, and economic conditions as predictors of distress in childre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46, 46-69.
- Shaw, D. S., Vondra, J. I., Hommerding, K. D., Keenan, K., & Dunn, M. (1994). Chronic family adversity and early chil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6), 1109-1122.
- Smith, M. C. (1998). Sibling placement in foster care: An exploration of associated concurrent preschool-aged child functioning. *Children & Youth Services Review*, 29(5), 389-412.